

컨템포러리 댄스 트렌드 분석에 관한 연구

정의숙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목차

1. 서론
2. 트렌드 개념에 관한 고찰
3. 작품 분석
 - 1) 저스틴 펙의 〈In the Countenance of Kings〉
 - 2) 시디 라비 체카위의 〈스투라〉, 〈두나스〉
 - 3) 자크 모리스의 〈Then She Fell〉
4. 결론

요약문

본 연구는 이 시대의 무용가들 중 전통을 이어 창작하는 그룹과 다음 시대로의 공연형식을 열어주는 그룹을 선정하여 작품을 분석하면서 트렌드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정한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상상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와의 융복합이 아닌 발레와 일상의 협업으로 구성된 무용을 비디오라는 또 다른 도구를 차용하여 새로운 형식으로 한 저스틴 펙(Justin Peck)과 타 문화(신체 장르)와의 협업을 형식으로 하는 시디 라비 체카위(Sidi Larbi Cherkaoui), 그리고 마지막으로 Site-Specific Dance Performance를 주도하는 자크 모리스(Zach Morris)를 선정하였다.

무용 트렌드 분석을 위하여 테크놀로지와의 융복합이 요구되는 사회의 공연예술 문화 환경에서 다른 차원의 융복합을 시도하고 있는 세 명의 안무가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저스틴 펙은 발레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든 공연장의 범주에서 벗어나 대중과 일상 안에 공존을 유도하며 주제를 표현하였다. 둘째, 벨기에의 시디 라비 체카위는 안무가 자신의 내공이 담보가 된 무한한 움직임의 역량을 소유한 창작자이다. 따라서 다양한 타 문화와 신체의 융합을 통해 용이하게 창작 작업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자크 모리스는 무용 전공이 아닌 연출 전공자로서 움직임을 포함하는 복합 형태의 이머시브 시어터(Immersive Theater) 형식으로 새로운 공연 장르를 주도하고 있다. 각 안무가들의 작품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을 중심으로 장면 및 내용과 형식을 서술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이 젊은 안무가들에게 그들만의 트렌드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트렌드, 융복합, 창작, 저스틴 펙, 시디 라비 체카위, 자크 모리스

1. 서론

당대의 예술가들이 그 시대의 창작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창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혹시, 그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예술가는 그 시대를 읽어야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예견하는 지각, 감성, 감각, 인지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 새로운 사조 태동의 동기가 될 것이라는 답을 하게 된다. 예술사를 돌이켜보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여는 예술가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어떤 장르가 되었던지 간에 양자가 다 시대정신에 깨어있고 투철할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술의 형식/형태/양식은 계속적인 변화들을 통해 진화되어 왔다.

특히 공연예술의 경우 현장에서 존재한다는 시간적 특성상 다양한 현실 사회의 반영에 민감한 편으로 간주된다. 물론 전통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레퍼토리는 예외일 수 있다. 초기의 예술 개념은 테크네(skill, rule)를 요구하는 분야만이 예술로 간주되었으며, 그 이후 정신적 산물이나 혹은 육체적 산물이나의 관계에서의 우위를 연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정신적인 것이 예술의 개념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 발전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신을 제반으로 관객에게 감동을 주느냐, 충격을 주느냐라는 논의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사유들/논의에 의해 무용에도 많은 형식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변형/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모더니즘 이후 예술은 감동보다는 충격을 주어야한다는 부분에 예술성, 독창성을 강조해 왔지만, 충격이 더 이상은 충격으로 느껴질 수 없는 시대에 도달했다. 따라서 이 시대는 고전과 현대가 공존하는 시대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시대의 무용가들 중 전통을 이어 창작하는 그룹과 다음 시대로의 공연형식을 열어주는 그룹을 선정하여 작품을 분석하면서 트렌드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특히 두 그룹을 선정하는 데 있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의 성향을 추구하는 단체에 중점을 두었다.

이 시대의 융복합은 과학, 즉 테크놀로지와의 협업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예를 들어 아드리안 엠(Adrian M)은 그들의 공연에 그가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무중력, 시간, 발자취의 반복 또 이 놀이에서 서커스 예술과 컴퓨터 공학으로 마법과 같은 환상을 주는 놀이로 춤과 시를 볼 수 있다.¹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선정한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상상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와의 융복합이 아닌 발레와 일상의 협업으로 구성된 무용을 비디오라는 또 다른 도구를 차용하여 새로운 형식으로 한 저스틴 펙과 타 문화(신체 장르)와의 협업을 형식으로 하는 시디 라비 체카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Site-Specific Dance Performance를 주도하는 자크 모리스를 선정하였다. 본 논문은 각 안무가들의 작품을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을 중심으로 장면 및 내용과 형식을 서술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새로운 무용의 경향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젊은 안무가들에게 이 시대의 공연 경향을 읽을 수 있는 기본 자료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트렌드 개념에 관한 고찰

트렌드(Trend)는 '동향, 추세'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² 트렌드는 인류가 공유하는 집단의 사상이나 생활 형태 안에서, 나아가 정치적, 사회문화적, 예술적 발전에 따른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져왔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것으로 특히 무용은 문화적인 트렌드와 연관성을 갖는다. 문화적인 트렌드는 축적된 과거의 경험과 현재 문화의 전반적인 특성을 내포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흐름을 나타내며 보편적인 대중화 현상에 그 시대를 대변하는 위력을 지닌다. 또한 특정 사회와 시대에서 경험하고 학습되어져 인간의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또한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와의 병치-혼합으로 발전되며,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져 있던 것이 사회 현상에 따라 동시대에 공동 방향으로 표출되어진다. 특히 오늘날은 사회 경험의 매개적 구조인 정보기

¹ 이정민, 「현대예술에서 무용과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융복합 작품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61쪽.

² www.naver.com 영어사전.

술의 발달로 인한 대중문화의 파급,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과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으로 사회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로로 문화를 접하게 된다.³ 이는 매스미디어가 트렌드를 형성하고 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트렌드의 개념을 통해 '무용의 트렌드'라는 논의와 연관시켜 서술하면, 서론에서 논의하였듯이 본 논문에서 무용의 트렌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예술의 형식과 창작성의 진화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컨템포러리 댄스의 트렌드는 안무에 있어 움직임의 구성에 무용수의 표현만을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와 문화 안에서 존재하는 몸과 연관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컨템포러리 안무가들은 동시대를 사유할 수 있는 철학이나 미학을 작품에 흡수시키고자 하며, 특히 이론 분야의 연구자들이나 비평가들이 안무의 실제 작업에 참여하게 되고, 안무 방식인 협업(collaboration)이나 리서치(research), 실험(laboratory)의 개념과 연결시킨다. 또한 무용에서 움직임을 고안하는 것보다는 안무가의 아이디어나 개념을 생산하는 방식에 더 집중하는 개념 무용(conceptual dance)과 같은 형식이 제시되기도 한다.⁴ 따라서 오늘날의 컨템포러리 댄스의 트렌드는 안무가 개인의 창작적 역량과 사회를 인식하는 의식적인 주관에 따라 방법론적인 것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작품을 창작한다. 특히나 여러 매체를 혼합하는 융복합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는 예술 간의 경계를 허물어 타 장르간의 협업을 통한 복합 매체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재조합과 재해석으로 독특한 예술이 만들어지며 관객들에게 다양함과 새로움을 제공함으로써 대중과의 소통을 용이하게 한다.

예술에서의 융복합이란 과학, 디지털콘텐츠 등과 예술과의 융복합을 말하거나, 또는 예술 안에서 장르간의 융복합을 말할 때 사용되어진다.⁵ 그러

³ 전성숙, 「문화적 트렌드가 현대 메이크업에 미치는 영향: 2000년도 이후 인쇄매체 광고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6쪽.

⁴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연구소 (편), 『사라지지 않는 예술, 무용이론을 말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137쪽.

⁵ 우혜주, 「빔 반데키부스(Wim Vandekeybus)작품에 나타난 융복합성 연구: <블러시(Blush)>와 <순수(Puur)>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4-15쪽.

나 본 연구자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어가는 무용의 트렌드를 다음의 세 작품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3. 작품 분석

1) 저스틴 펙의 〈In the Countenance of Kings〉

발레 안무가 저스틴 펙의 〈In the Countenance of Kings〉에 대하여 작품 분석을 하고자 한다. 펙은 1987년 9월 워싱턴 D.C 출생으로 2006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부터 현재 뉴욕시티발레단(New York City Ballet)에서 솔리스트이자 상주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용커스의 19세기 석재 성에서 생애 처음으로 영화를 감독하기도 하였다. 〈In the Countenance of Kings〉는 2016년 4월 12일 전쟁기념관 오페라하우스에서 샌프란시스코발레단(San Francisco Ballet) 소속 무용수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본래 이 작품은 극장용 작품으로 만들어졌으나 연구자는 비디오댄스의 형식으로 재구성된 작품을 분석하였다.

비디오댄스는 포스트모던시대 이후 창작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 춤의 한 장르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는 무용 퍼포먼스를 영상에 담아내는 작업으로 내러티브가 명확하지 않아 관객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새로운 영상 예술 형식 중의 하나이다. 카메라 앵글 안에서 보이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카메라의 회전이나 각도에 따라 다방면에서 포착되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카메라의 시선으로 안무가의 의도를 따라가게 한다. 따라서 카메라의 클로즈업은 좀 더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을 가능하게 하고, 무대예술로서 내재하고 있는 무용의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보통은 현대무용을 비디오댄스로 구성하고, 발레공연은 무대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기록물로 남기기 위한 촬영을 하였을 뿐 비디오댄스를 위해 재구성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었다.

〈In the Countenance of Kings〉 안에서 무용수들은 레오타드를 입고 흰색의 운동화를 신고 발레의 무대인 프로시니엄 무대에서 벗어나 성에서

춤을 춘다. 발레는 토슈즈를 신고 튜튜를 입고 무용전용극장에서 공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현대무용은 포스트모던 이후로 극장에서 벗어나 주차장, 공터, 지붕 등에서도 춤을 출 수 있다는 탈극장화를 선언하였다.⁶ 그렇기 때문에 현대무용에서의 탈극장화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발레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운동화를 신고 무대 밖에서 이루어지는 발레는 낯설어 보인다. 클래식 발레의 형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지만 펙은 이례적인 일을 새로운 트렌드로 이끌어 나간다.⁷ 발레의 특성과 형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변화를 주어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뉴욕타임스》 브라이언 사이버트(Brian Seibert)의 글에서 인용하고자 한다. 펙은 “내가 〈해밀턴(Hamilton)〉을 보았을 때, 거기에는 아주 많은 정보가 있었고 매우 빨랐다. 뒤쳐지지 않으려면 내가 계속 따라가야 했다. 나는 예술의 그런 면을 볼 때 매우 들뜬다.”라고 했다.⁸ 이는 펙의 예술관이 느껴지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또 Art info에서는 “아티스트라면 꼭 봐야 할 작품이다.”라고 말하며 펙의 작품이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가 클래식 발레를 포스트모던의 형식으로 안무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성과 형식의 해체, 공간의 해체, 그리고 그 안에서 작품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였다. 모던발레의 사전적 정의는 ‘전통적인 발레의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각으로 개성적인 표현을 추구하는 발레이다. 회화적, 시각적 경향이 짙고, 현대 음악과 결부되어 있다.’라고 정의한다. 현재 국내외의 많은 발레단에서 모던발레 공연을 많이 하고 있다. 발레의 전유물인 토슈즈를 신기도 하지만 맨발 혹은 발레슈즈를 신고 춤을 춘다. 이때 그들의 의상은 튜튜를 벗어던지고 몸에 붙는 타이트한 의상을 주로 입는다. 또한 클래식 음악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전자음악과 현대적인 음악을 사용해 그들이 표현하고자

⁶ 박은희, 「초기 포스트 모던댄스의 퍼포먼스적 특성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2쪽.

⁷ 정수미, 「Maurice Bejart에 나타난 현대발레의 안무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4쪽.

⁸ 《뉴욕타임즈》(검색일: 2016.01.29)

하는 바를 부각시킨다. <In the Countenance of Kings>에서도 클래식 음악을 사용하지 않고 발랄하고 튀는 음악에 맞추어 무용수들의 동작을 구성하였다. 또 전통발레에서의 무용수들의 역할을 해체시켰는데, 주역과 단역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무용수가 같은 위치에서 춤을 춘다. 이것은 포스트모던댄스의 대표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무용수들의 서열을 해체시켜 모든 방향에서 무용수들이 동일하게 보이게 하여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 다음은 공간의 해체이다.⁹ 다른 무용 장르도 프로시니엄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것이 익숙한 일이지만 발레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발레를 무용 전용 극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도 이례적인 일이다. 포스트모던을 거치면서 발레를 야외에서 하거나 축제 같은 곳에서 하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포스트모던댄스처럼 공터나 주차장 등 일상적인 공간 안에서 하는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적으로 <In the Countenance of Kings>는 의의가 크다. 포스트모던의 선두인 저드슨댄스그룹은 뉴욕의 저드슨 교회에서 발표회를 열었고 그것이 포스트모던댄스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작품도 저드슨그룹과 마찬가지로 성안에서 춤을 추었는데, 발레를 포스트 모던화 시켰다는 새로운 트렌드를 선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 공간뿐만이 아니라 무용수들의 토슈즈를 벗어던지고 운동화를 신고 춤을 춘 것도 발레의 혁신을 기하는 일이다. 포스트모던댄스가 처음 성행되기 시작하였을 때 현대 무용가들은 맨발로 춤을 추던 것을 탈피하여 운동화를 신고 춤을 추었다. 펙의 작품에서 발레무용수들이 토슈즈를 벗고 운동화를 신은 채 춤을 춘 것은 더욱 혁신적이고 포스트모던을 상기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Indiwire는 이 작품이 “인간의 신체와 정신의 능력을 보여 준다.”라고 평한바 있다.

<In the Countenance of Kings>는 발레의 형식과 특성을 유지한 채 변화를 주어 새로운 형식으로 탈바꿈한 것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였다.

⁹ 최재현,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본 윌리엄포사이드 작품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3쪽.

¹⁰ 문신하, 「현대발레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4쪽.

기존에 발레를 모던화 하는 작업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전통발레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을 들어왔다. 하지만 이 작품은 발레를 새로운 발레의 형식으로 표현하였기에 보다 진보적인 의미를 산출한다. 포스트모던의 예술적 특성인 일상의 혼용과 퍼포먼스형식은 신선한 충격을 전한다. 형식의 틀에 박힌 발레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움과 다양함을 확대시킨 이 작품은 발레를 비프로시니엄무대로 추구하고 이끈다. 이는 곧 무용작품, 무대, 관객의 사이를 보다 가깝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발레의 본래적 특성은 간직한 채 독립성과 개성을 유지한 새로운 공연물의 형태로 볼 수 있겠다.

2) 시디 라비 체카위의 <스투라>, <두나스>

시디 라비 체카위는 현재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현대무용 장르에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그는 현대무용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벨기에 세드라베(C de La b)무용단에서 무용수로 활동 하였으며 현재 벨기에에서 주목 받는 안무가이다. 그의 작품은 시각적 디자인이 뛰어나며 타 문화(신체 장르)와의 화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창작 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장르의 화합이라고 볼 수 있다. <미스(Myth)>는 아랍 스타일과 플라망 스타일이 다양한 언어와 섞여 독특한 작품으로 발표 되었다. 그리고 <스투라>에서는 중국의 소림사 승려들을 무대에 올려 소림 무술을 재해석 하지 않은 채 시연되었고 무대에서 무용수들과 어우러져 공연이 되었다. <두나스>는 플라멩코의 음악과 춤을 올렸으며 <플레이(Play)>에서는 인도의 쿠치푸디(Kuchipudi)의 움직임을 접목하여 공연하였다.

위와 같이 체카위의 작품을 살펴보면 세계 각국의 전통적인 장르의 움직임을 결합하여 안무하였다. 작품에서 움직임은 장르의 순수한 움직임을 왜곡하지 않은 채 받아 들었다. 그 순수한 전통적인 움직임은 현대무용의 다양한 요소와 결합하여 공연되었다. 체카위처럼 다양한 문화를 결합하여 공연하는 안무가들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구안나¹¹⁾는 문화적 다원성의

발현 양상과 예술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에서 국가의 다양한 문화적 움직임은 작품 창작을 위한 표현매체로 활용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렇듯 최근 한 작품에 여러 가지 문화를 혼합하여 움직임을 구체화하는 것이 무용 창작의 특성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작품 분석을 하는데 있어 그의 안무 특성들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판단되는 〈스투라〉와 〈두나스〉를 선별하였다.

(1) 〈스투라〉(2013)

〈스투라〉는 서로 다른 분야인 무용과 무술 그리고 라이브 음악이 만나서 하모니를 이룬 작품이다. 우리 몸의 오감을 깨우고 이성을 동시에 자극시키는 작품으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소림 무술을 무용의 시각으로 재조명한 것이다. 최근 다른 장르와 문화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소림 무술 또한 문화 융합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장민, 김동규¹²는 소림 무술의 현대적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에서 소림 무술은 외래문화와 본토문화의 결합이 형성된 문화로서 세계 종교 사상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각국의 다양한 문화들을 서로 결합하여 표현하는 것은 새로운 예술 표현의 한 형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한 예로, 안무가 체카위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소림 무술의 동작을 받아들여 작품을 만든 안무가이다. 체카위는 2007년도에 소림사를 방문하여 소림사 승려들의 무술 기술과 그들의 정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들과 함께 작품 작업을 하였다.¹³ 본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7명의 소림사 승려들이 직접 출연 하였다는 점이다. 17명의 승려들은 소림사 무술의 섬세한 손놀림과 빠른 발 스텝으로 이루어진 동작들을 파워풀한

11 구안나, 「피나 바우쉬 국가·도시 시리즈 작품에 나타난 문화적 다원성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 제70권 5호, 2012, 17-38쪽.

12 장민, 김동규, 「소림 무술의 기원과 사상적 맥락」, 『한국체육철학회』 제18권 4호, 2010, 21-38쪽.

13 정은주, 「컨템포러리댄스에 나타난 포스트모던댄스의 미적 특성과 기능」,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90쪽.

에너지로 발산하고 있다. 체카위는 공연을 위해 3개월 동안 무술을 훈련 받았고 작품을 함께 만들었다. 다시 말해 체카위의 움직임은 무술을 통해 훈련된 몸으로 승려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준비된 몸을 갖추었으며, 작품에서 실제 승려와 같은 무술을 선보였다. 또한 무술 복장을 입고 작품에 등장하며 칼을 사용한 무술 동작을 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에 다른 안무가들이 특정 움직임을 사용하여 자기화하는 작업과 다른 차원에 작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승려들은 무대 밖을 보고 있다가 두 팔을 빠르고 크게 원으로 돌리는데, 이와 동시에 한 발로 바닥을 내려치면서 중앙으로 모이는 동작은 군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호흡은 한 명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일치되어 있다. 그리고 무대 중앙에 일렬로 놓혀 있는 상자 위에서 한 명의 승려가 칼을 들고 무술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체카위는 무대 하수 쪽에서 어린 승려와 나무 상자 양 끝에 앉아 손가락으로 칼의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무대 뒤쪽에는 17개의 나무 상자가 세로로 세워져 일렬로 서있다. 승려들은 나무 상자 위에서 칼 싸움을 하고 있고, 체카위는 나무 박스에 기대어 일상적인 움직임을 한다. 이와 같은 정적인 움직임과 동적인 움직임은 소통하듯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나무 상자가 세로로 세워진 무대 사이를 승려들은 아크로바틱 동작을 하면서 뛰어다니는 동작은 몸이 한 동작마다 한 번에 타격하는 모습으로 단순히 보여 지는 동작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체 움직임이 모든 것에 대한 표현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정신을 담고 있다.¹⁴ 그것은 아마도 승려들의 영적인 부분까지 초월한 에너지 일 것이다.

무대 디자인을 제작한 안토니 골름레이(Antony Gormley)는 오브제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직사각형 나무 상자 21개를 사용하였다. 이 오브제는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이루며 유연한 구조로 활용되었다.¹⁵ 커다란 상자는 오브제를 뛰어넘어 무대 세트로 사용되며 무용수들과 승려들을 각각의 존재로 인식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무대 중앙에 세로로 서 있는 나무 박스가 쓰러지는 동시에 승려들은 상자를 이동시켜 무대 공간을 변형

¹⁴ <https://www.youtube.com/watch?v=ExJkBsv8lY8> (검색일: 2016.04.21)

¹⁵ http://kor.theapro.kr/?sub_num=7&state=view&idx=5768 (검색일: 2016.05.12)

하고 빠른 움직임으로 상자 안과 밖을 그리고 위와 아래를 자유자재로 돌아다닌다. 그 안에서 그들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깨는 형식을 완성한다. 골름레이 인터뷰에 따르면 상자의 비율은 폭과 깊이보다 길이가 세 배라고 한다. 이것은 자유와 격리에 대한 연구이며 그는 “몸이 어디에 있는 동안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몸은 구속되어도 상상은 어디에든 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¹⁶ 즉 이것은 상자 속은 격리로 상자 밖의 공간을 자유로 바라볼 수 있다.

본 작품은 동서양의 문화와 사회의 교류 속에서 빚어진 작품으로 문화의 화합을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지 움직임을 모방하거나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의 움직임을 무대 위에서 공연하여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다. 이 작품을 통해서 현 시대의 무용 작품에 세계의 문화가 하나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문화 화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용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세계 각국의 문화와 혼재, 화합이라는 단계를 거쳐 각국의 문화적 움직임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두나스>(2009)

다음 작품은 스페인 플라멩코 무용수 겸 안무가 마리아 페이지(María Pagés)와 함께 한 <두나스>이다. 본 작품은 사막의 모래 언덕과 그 모래 언덕의 변형이 주는 영감을 토대로 만든 작품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속이 비치는 커다란 천으로 장식된 무대 세트이다. 천은 전체적으로 주황색 조명이 비추어지고 있으며 마치 모래 언덕의 황색 빛을 만들어 낸다. 이 빛은 자유에 대한 열망과 탄생을 의미하고, 사막에서의 자유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막에서 어떤 방향을 자유롭게 결정하지만 이것은 길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들은 무대를 공유하고 공통의 공간을 만들어 천을 통해 공간을 분배하였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서로를 굴리고 천으로 감싸면서 신체가 하나 되는 묘한 매력을 발산하였다. 무대

¹⁶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p08kQVWAbwo (검색일: 2016.04.29)

전체가 가려질 만한 크기의 베이지색 천에 그림자가 비추도록 하여 두 무용수는 하수에서 상수로 움직이며 마치 사막위에서 춤을 추듯이 부드러우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화합되었다. 또한 중앙에서 두 무용수는 몸을 천으로 감싸 분리될 수 없게 고정 시켰다. 두 무용수는 고정된 몸에서 서로 팔을 돌리고 서로를 감싸고 한 팔씩 교차하는 움직임을 통해 몸과 몸이 화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체카워와 페이지는 함께 하수에서 상수 쪽으로 사선을 따라 이동한다. 체카워는 바닥을 무릎으로 끌고 다니면서 스트릿 댄스의 유연한 움직임을 선보이는 동안 페이지는 정렬적인 플라멩코의 동작을 선보이며 감각적인 포즈를 한다. 두 무용수는 각자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동시에 서로의 스타일을 변형 시키지 않았으며, 두 스타일을 고스란히 작품에 담아 현란한 듀엣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장면들은 서로 다른 성질의 움직임이 만나 서로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플라멩코와 플라멩코의 전형적인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다른 장르의 춤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이는 플라멩코와 컨템포러리 댄스가 융합되어 현대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장르의 화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무대 위에 또 다른 주인공인 연주자는 상수와 하수에 나뉘어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하였다. 연주자들은 무용수들과 호흡을 맞추며 연주하고 무용수들은 강렬한 플라멩코의 음악을 통해 서로를 그려 낸다. 플라멩코의 본고장인 스페인에서는 플라멩코의 중심을 춤보다 음악, 기타 연주로 보고 있다.¹⁷ 그래서인지 이 작품에서는 음악의 현란함이 돋보인다. 플라멩코의 원곡과 스페인, 모로코, 폴란드의 음악가인 사이먼 브르조스카(Szymon Brzóska)와 루벤 르방니에고스(Rubén Lebaniegos)와 팀을 구성하여 작업을 하였고 음악은 두 안무가가 춤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었다. 여러 나라의 예술가들과 장르가 결합되어 이 작품은 주제가 아닌 무대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로부터 글로벌화 되고 있는 것이다.

본 작품은 춤, 노래, 기타 연주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종합 예술로

17 김숙영, 『보통남녀 교양인문학 3 상식에 대한 가벼운 접근』, 플럼북스, 2012, 288쪽.

그들은 공통의 에너지를 자신의 움직임 리듬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또한 작품에서는 모래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형상화 하며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이미지들은 기호와 진리를 보여주며 장면마다 나타나는 그림자는 무용수와 협업을 이룬다. 따라서 작품에 사용된 모든 요소들은 서로 화합하여 무대를 구성하고 연출한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양한 장르의 화합이 몸과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무대 위에 세계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작품에서 확인되는 문화(신체 장르)의 화합은 다양한 움직임으로의 구성과 확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으로 다른 문화의 춤을 현대무용과 결합하여 작업을 한 체카위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현대무용의 한 형식으로써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와의 화합을 시도하여 새로운 형태의 작품들이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현재 새롭게 작업을 시도하는 많은 안무가들 및 무용 연구자들에게 현 시대의 현대무용 작품의 흐름을 소개하고 앞으로 현대무용의 다양한 형식의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자크 모리스의 〈Then She Fell〉

예술 감독 자크 모리스, 톰 피어슨(Tom Pearson), 그리고 제닌 윌렛(Jennien Willett)의 주도로 활동하고 있는 'Third Rail Projects'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단체이다. 그들이 이끄는 Third Rail Projects의 작품 〈Then She Fell〉은 Site-Specific Dance Performance이다. 〈Then She Fell〉을 분석하기에 앞서 Third Rail Projects가 지향하는 'Site-Specific'에 대해서 먼저 논하고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무용에서 'Site-Specific'이란 용어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타 예술분야에서는 일반화된 용어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특정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 제작된'이란 뜻으로¹⁸, 흔히 '장소 특정적'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장소 특정

¹⁸ www.naver.com 영어사전.

적'이란 단어는 단어 그대로 장소를 특정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장소를 선정하고 그에 맞춰서 무엇인가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미술이나 음악에서 야외전시나 공연을 한다고 해서 이를 'Site-Specific'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Site-Specific'이란 용어는 현대미술의 미니멀리즘에 기원을 두고 발생하였다. 미술관에서 실제 공간을 점유한 채 존재하지만, 작품이 실제 공간과 맺는 관계의 필연성이 부족했던 무장소성의 모더니즘 미술과 달리, 장소 특정적 미술은 설치된 작품(Work)과 작품이 있을 외적인 요소인 장소(Site)가 관계되면서 시작되었다. 장소 특정적 미술은 공간과 작품의 내적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 작품만을 위한 특별한 장소를 필요로 하며, 그 장소를 벗어나서는 의미가 상실된다.¹⁹ 또한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에 영향을 받은 미니멀리즘의 공간인식²⁰으로 인해 관람자의 신체적 지각, 즉 체험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장소 특정적 미술은 관객의 체험적 경험을 기본으로 하여 공간과 작품 간의 관계필연성에 주목하였다.²¹

연극에서의 'Site-Specific'은 전통적인 프로시니엄 무대를 거부하고 발생한 관객의 공간적 경험을 위한 실험극의 하나이다. 거리, 호수, 도서관, 성곽, 폐차장 등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장소에서 공간과 예술(작품, 텍스트), 관객을 인식하며 공간을 미학적으로 접근하는 체험적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²² 장소 특정적 연극은 실험극으로 공간의 가능성을 탐미하며 관객과의 상호연관성과 소통을 지향하고 있다.

즉 미술과 연극을 통해 본 'Site-Specific'은 작품과 관객이 공간을 통해

¹⁹ 이지희, 「장소 특정적 미술에 대한 담론적 연구: 1960-1990년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8쪽.

²⁰ 「미니멀리즘의 공간인식에서처럼 공간은 경험되기 위한 것으로 관람자는 실제 장소에서 3차원 오브제를 지각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장소특정성에서 의미하는 신체는 물리화된 신체로 주변 환경을 지각하고 있는 상태이며, 비판성을 겸비하고, 지각적 예민함이 강조된 신체인 것이다. 미니멀리즘에서 이처럼 관람자의 신체적 지각이 중시된 배경을 메를로 폰티(M. Merleau-Ponty)의 현상학이 미니멀리즘 작가들에게 미친 영향 때문이다.」, 위의 논문, 24쪽.

²¹ 이해민, 「Site-Specific 공간특성을 활용한 작품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22쪽.

²² 강민정, 「장소 특정적(Site-Specific) 극 공간 디자인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쪽.

상호연관성을 형성하고, 공간이라는 매개를 통해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소통을 지향하는 것이다.

무용에 있어서 'Site-Specific'은 특정 장소에서 구현되는 춤으로, 특정한 위치 또는 특정한 공간에서 영감을 얻어 만드는 작품 유형을 말한다. 즉 작품의 내용이 먼저가 아닌 특정적인 공간에 우선성을 두고, 그 공간의 특성을 사용하여 공연을 계획하는 것이다.²³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탐구를 시도한다. 한편 외국에서는 'Site-Specific'의 공간 안무가에 대해 "그들은 장소의 역사와 관련된 징후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노력과 숙고 끝에 장소와 공동체에 상응하는 작품을 창조해낸다."라고 이야기한다. 즉 외국에서는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서 장소나 공간에 대한 조사와 해석을 토대로 만들어 낸 작품을 'Site-Specific'이라 한다.²⁴ 'Site-Specific' 무용의 특성은 입체적이며 유동적인 새로운 공연 공간의 창출과 공연자와 관객과의 거리 축소, 관객들의 호기심 유발과 대중화, 즉흥적인 현장성, 이를 통한 상호관계를 형성시킨다는 것이다.

Third Rail Projects는 이러한 'Site-Specific' 무용을 시도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단체이다. 장소 특정적이고 몰입적(immersive)이며 체험적인 무용극을 만드는 선두주자로서, 예술감독 모리스, 피어슨, 그리고 윌렛 주도 아래, 관객과 컨템포러리 공연을 결합하는 방법을 새롭게 재구성하며, 15년 동안 국내, 해외, 뉴욕에서 공연작품을 만들었다.²⁵

《Then She Fell》은 Third Rail Projects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2012년 10월 6일 브룩클린의 폐허가 된 병원 병동에서 올려졌다. 이머시브 시어터(Immersive Theater)²⁶ 작품으로 공연은 회당 15명의 관객만을 위해 만들어

²³ 홍정아, 「공간을 활용한 Site-Specific 무용의 공연사례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5쪽.

²⁴ 이혜민, 앞의 논문, 2014, 24쪽.

²⁵ www.thenshefell.com 홈페이지 (검색일: 2016.04.28)

²⁶ 200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공공 예술정책과 맞물려 도시재생 문화사업이 한창 추진되던 영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머시브 연극'(Immersive theatre)은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가 와해된 공간적 환경을 제공하며, 관객이 직접 이동하며 창발적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해가는 참여형 공연 형태를 통칭한다. 이는 '환경극'(Environmental theatre)이나 '장소 특정적 공연'(Site-specific performance) 등, 극장제도와 언어 텍스트 중심의 공연 관습에서 탈피하기 위한 시도들과 맥을 같이 한다. 백영주, 「이머시브 연극의 경험성과 매체성 연구」, 『인문콘텐츠』 제36권,

졌다. 그들은 공연의 취지를 관객들이 탐구 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서 엘리스처럼 새로운 세계를 탐구 할 수 있도록 공연 관람은 거의 혼자 이루어지도록 구성했다. (...) 우리는 관객들이 단지 수동적인 관람객이 아닌 능동적인 관람객이 될 수 있도록 공연을 만들었다. 공연 시작 전 관람객들은 각 열쇠고리를 받게 된다. 그 열쇠들을 이용하여 병동의 방 혹은 서랍을 열어 볼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엘리스와 저자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둘 사이의 러브레터 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믈리에와 칵테일을 만드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병동 곳곳에 관람객들이 마실 수 있는 묘약들이 있는데, 관람객은 엘리스와 같이 묘약들을 마실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의 이야기는 관람객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²⁷

작품의 시나리오는 저자 루이스 캐롤(Lewis Carroll)의 사생활을 바탕으로 구성되었고, 씬들은 모리스가 예전에 만든 시리즈 설치 작품의 환경들을 이용하여 씬들의 구성으로 활용하여 이머시브 시어터 작품을 만들어 나갔으며, 관객의 참여에 대해 탐구하였다. 작품은 브룩클린의 폐허가 된 병원(특정장소) 환경과의 융합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공간에 어울리는 움직임, 언어를 더욱 더 깊이 탐색하였다. 무용수들은 병원의 곳곳에서 그 환경에 어울리는 움직임들로 관객들과 함께 한다. 관객들은 혼자 그들의 세계를 따라가며 그 세계의 한 부분으로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병원의 문을 열면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관객으로 하여금 엘리스가 되어 미로를 따라 들어가며 작품의 일부분이 되게 한다. 관객은 무용수가 건물 내부의 구조물을 이용해 만드는 퍼포먼스를 보며 환경적으로 온전히 둘러싸이며 집중하게 된다. 무용수는 창들의 위 구조물에 매달려 발로 창문을 내리기도 한다. 무용수의 움직임이 없어도 그 병원(특정한 장소)을 둘러보며 따라가는 길은 관객으로 하여금 탐구하며 사유하게

2015, 109쪽.

²⁷ Then She Fell-Preview

<https://www.youtube.com/watch?v=NJ0FKKfxygM> (검색일: 2016.04.28)

한다. 여러 방의 곳곳에 설치된 장식물들과 그림, 오래된 사진들은 작품의 캐릭터를 더욱 부각시키고, 무용수들은 각각의 방의 환경에 대응하는 움직임들을 펼친다. 소파 위에서, 체스의 말을 이동시키며, 혹은 진주 목걸이를 해 보거나, 거울을 응시하며 움직인다. 또한 방의 환경이 주는 느낌의 시대에 어울리는 의상과 분위기를 연출한다. 야외의 가든에서는 테이블을 이용하여 두 무용수가 대응하거나 반응하며 움직이고, 분수 안에서는 떨어지는 물 아래에서 무용수가 몸을 앞뒤로 흔들며 물을 털어내는 움직임을 한다. 이러한 퍼포먼스를 따라가며 관객은 반응하고 때로는 선택을 하며 함께 만들어 간다.

이러한 〈Then She Fell〉의 공연을 《뉴욕 타임즈》의 벤 브렌틀리(Ben Brantley)는 ‘2012년의 톱 텐 공연’으로 지정하며, “이 공연은 마치 정상적인 판단과 분류가 불가능한 꿈의 한 장면으로 다다르게 했고, 나 자신을 지속적으로 분열시키고 흐리게 만들었다.”(2012.12.01)고 평했다. 그리고 《보그(Vogue Magazine)》는 2013년 최고의 극장 경험이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뉴욕 타임즈》의 쇼반 버크(Siobhan Burke)는 “떨쳐 버리기 힘든, 환각적인, 그리고 극도로 친밀하게 다가왔다.”(2013.08.09)고 평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의 리지 사이몬(Lizzie Simon)은 “〈Then She Fell〉은 좀 더 정교하게 제작된 경험을 제공한다고나 할까... 모든 관객들에게 공연장을 떠날 때 까지 스스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동으로 이 공연을 제작한 것과 같은 만족도가 들 때 까지, 심지어 공연의 화술이나 이야기의 명암 까지도...”(2012.10.04)라고 평했다.

〈Then She Fell〉(2013)과 〈Vanishing Point〉(2008)는 New York Dance and Performance(Bessie) Award에서 상을 받았다. 또한 Third Rail Projects의 예술 감독들은 《브루클린 매거진(Brooklyn Magazine)》에 의해 최근 브루클린 문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가운데 선정됐다. 〈Then She Fell〉 이후 이와 견줄만한 공연 〈The Grand Paradise〉를 2016년 2월에 시작하였고, 동시에 새로운 이머시브 및 site-specific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국제적으로는 새롭게 출시한 국제 공연 스튜디오(Global Performance Studio)를 통해 지속적인 작업을 해 오고 있다.

Third Rail Projects는 현대적인 작품을 제시함과 동시에 새롭게 제시된 상황구현적인 작품 뿐 만 아니라 열렬한 춤, 또는 독특한 경험을 갈망하는 관객들마저 아우르는 역사적 또 창조적 의지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의 창의적인 과정은 새로운 장소, 단체, 문화적 환경을 가로 지르는 의의이자 개념이다. 현재의 이런 노력이 특정 지역 사회에서 예술 교류와 공유 촉진 프로그램 면에서 뚜렷이 증명되고 있다.²⁸

다시 말해, Third Trail Projects의 이러한 ‘창조적 과정과 결과물들’은 단지 작품의 결과물로서만 인식하는 것보다는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기존의 공연에서 창작자들은 상당 부분 불친절했고 관객들은 소외되었었다. 무용 공연은 그저 보면서 평면적인 수용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공연은 현장에 공연의 일부분으로 참여하며, 즉흥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 관객으로서 살아 있는 객체가 되어 반응하고 탐구하며 사유한다. 감성만이 아니라 이성을 자극하며 지적인 충만감을 만족시키며, 특정 부류가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성이 부각된다. 또한 Site-Specific 작품이기 때문에 브룩클린이라는 지역의 특수성과 맞닿으면서 예술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예술의 지역참여, 사회참여는 이 공연을 통해 예술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예술을 통한 사회적 해석의 가치 증가, 이것이 이 작품과 프로젝트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4. 결론

무용 트렌드를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테크놀로지와 융복합이 요구되는 현 시대의 예술문화 환경에서 매체의 본질을 유지한 채 다른 차원의 융복합을 시도하고 있는 세 개 단체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의 안무가 펙은 발레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든 공연장의 범주에서 벗어나 대중과 일상 안에 공존을 유도하며 주제를 표현하였다. 이는 안무가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안무가의 미적 비전을 예시한

²⁸ www.thenshefell.com 홈페이지 (검색일: 2016.04.28)

것이고, 한편으로는 움직임의 보편적 원칙들을 구현한 것²⁹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발레의 모던화 작업은 전통 발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발레를 창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벨기에의 안무가 체카위는 자신의 내공이 담보가 된 무한한 움직임의 역량을 소유한 창작자이다. 이는 타 문화와 신체와의 융합을 통한 창작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반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의 움직임을 통한 다양한 문화들을 서로 결합하여 창작된 새로운 예술 표현의 형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안무가 모리스는 무용 전공이 아닌 연출 전공자로서 움직임을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이머시브 시어터 형식으로 새로운 공연 장르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공연들에서 관객들은 그저 바라보는 평면적 수용에서 벗어나 공연의 일부로 참여함으로써 창작자와는 독립된 주체로서 작품을 해석하고, 탐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 시대는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 예술가들의 범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 현실이다. 창작을 위해 배우는 교육 과정과 창작물을 만드는 창조적 과정 사이의 간극을 본 연구의 분석이 젊은 안무기들에게 그들만의 트렌드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²⁹ 제인 데스몬드 외, 『문화연구, 춤의 새로운 이해』, 김수안 김현정(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114쪽.

참고문헌

단행본

- 김숙영, 『보통남녀 교양인문학 3 상식에 대한 가벼운 접근』, 플럼북스, 2012
-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연구소 (편), 『사라지지 않는 예술, 무용이론을 말하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제인 데스몬드 외, 『문화연구, 춤의 새로운 이해』, 김수인·김현정(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5

논문

- 강민정, 「장소 특정적(Site-Specific) 극 공간 디자인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문신하, 「현대발레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은희, 「초기 포스트 모던댄스의 퍼포먼스적 특성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우혜주, 「빔 반데키부스(Wim Vandekeybus)작품에 나타난 융복합성 연구:〈블러시(Blush)〉와 〈순수(Puur)〉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지희, 「장소 특정적 미술에 대한 담론적 연구: 1960-1990년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혜민, 「Site-Specific 공간특성을 활용한 작품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전정숙, 「문화적 트렌드가 현대 메이크업에 미치는 영향: 2000년도 이후 인쇄매체 광고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정수미, 「Maurice Bejart에 나타난 현대발레의 안무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은주, 「컨템포러리댄스에 나타난 포스트모던댄스의 미적 특성과 기능」,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최재혁,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본 윌리엄포사이드 작품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홍정아, 「공간을 활용한 Site-Specific 무용의 공연사례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4

구안나, 「피나 바우쉬 국가·도시 시리즈 작품에 나타난 문화적 다원성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 제70권 5호, 2012

백영주, 「이머시브 연극의 경험성과 매체성 연구」, 『인문콘텐츠』 제36권, 2015

장민, 김동규, 「소림 무술의 기원과 사상적 맥락」, 『한국체육철학회』 제18권 4호, 2010

기타

《뉴욕타임즈》

www.naver.com 영어사전

www.thenshefell.com

<https://www.youtube.com/watch?v=ExJkBsv8LY8>

http://kor.theapro.kr/?sub_num=7&state=view&idx=5768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p08kQVWAbwo

<https://www.youtube.com/watch?v=NJ0FKKfxygM>, 'Then She Fell-Preview'

Abstract

A Trend Analysis of Contemporary Dance

*CHUNG, Euisook**Sungkyunkwan University**Professor, Department of Dan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esent (Western) modern dance by analyzing the works of three choreographers who are currently at the forefront of the dance scene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current choreographic trend.

The three selected choreographers for this study are Justin Peck (USA), Sidi Larbi Cherkaoui (Belgium) and Zach Morris (USA). These choreographers were chosen on the basis of their significant identity within the current dance scene. For analysis, one noteworthy works of each choreographer were selected for video analysi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llustrates that in the current era of promoting technology convergence in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the three choreographers approach convergence differently by integrating dance and other mediums in their choreography. Peck converges between ballet and the ordinary, Cherkaoui converges between dance and other cultures and Morris converges between dance and venue.

KeyWords

trend, convergence, creativity, Justin Peck, Sidi Larbi Cherkaoui, Zach Morris